

##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 토지보상 시행

- 충북 단양군 및 경북 안동시 대상.. 올해 350억원 투입 -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에 편입된 충북 단양군과 경북 안동시 일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4월부터 용지보상협의 착수한다.

이번에 단양군과 안동시 대상 보상물량은 토지 393필지와 지장물 288건으로, 향후 영주시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올해 약350억원을 보상할 예정이다.

강원본부는 올해 1월 사업실시계획이 승인 후, 2월까지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완료하였고 3월까지 보상계획에 대한 알람과 보상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를 포함한 3개 평가업체를 선정해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철도공단은 용지보상이 착수됨에 따라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며, 2018년까지 약 3조 6천억원을 투입해, 중앙선 전 구간을 전철화할 계획이다.

최정환 본부장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원활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겠다."고 전하며, "경북내륙지역의 여객 및 물류 발전을 위해 고품질의 철도를 건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도담~영천 사업현황 및 보상계획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도담~영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도담~안동(72.2km) 복선, 안동~영천(75.9km) 단선]
- 사업기간 : 2010~2018년
- 총사업비 : 3조 6,474억원
- 실시계획승인 : '15년 1월 2일(국토부고시 2014-884호)

### 추진경위

- '09.12~' 10. 6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B/C 0.8, AHP 0.557)
- '10. 9~' 11.12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시행 (B/C 0.86)
- '12. 4. 3 : 기본계획 고시
- '12.11.28 : 노반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체결
- '13. 1.31 : 터키공사 실시설계격자 선정 (1,2,6,11공구)
- '13.11. 4 : 터키공사 6공구 공사계약 체결
- '14. 1.10 : 터키공사 1,2공구 공사계약 체결

### 보상계획

- '15. 3월 : 1, 6공구 감정평가, 보상협의 및 2공구 보상계획 공고
- '15. 4월 : 1,6공구 협의보상(1공구 202필지, 6공구 191필지)
- '15. 5월 : 2공구(461필지) 협의보상
- '15. 7월 : 1,2,6공구 미매수 토지 재결신청 및 3~5공구 협의보상
- '15. 9월 : 3~5공구 미매수 토지 재결신청
- '15.11월 : 1, 2, 6공구 수용재결 및 공탁완료(12월)

##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진입도로(시도16호선) 완공

충청본부(본부장 노병국)는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진입도로 공사를 4월2일(목) 고속철도 개통에 맞추어 4월1일 완공했다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을 진입하는 도로는 공주시의 시도16호선과 리도207호선으로, 이 중 리도 구간은 지난 2월 완공하였으나, 시도 구간은 지자체의 용지보상이 지연되어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기공승락과 노선변경을 동시에 진행하고, 휴일·야간작업병행, 인력과 장비의 추가투입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착공한지 1개월 만에 고속철도 개통일에 맞추어 4월 1일 완공하였다.

이번 진입도로의 완공으로 공주역을 이용하는 철도이용객의 불편이 해소되고 공주역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舊)전라선의 신리터널, '문화예술 공간' 으로 재탄생

- 예술작품과 도서를 비치해 문화체험 공간으로 조성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전라선 복선전철 개량사업으로 발생한 폐철도노선 중 신리터널(전북 전주와 완주군 사이에 위치)을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전라선 복선전철 개통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된 신리터널(총255m길이)은,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좋아, 올해 2월부터 일반인 대상 임대 추진했으며, 터널 내에는 지역에서 생산된 옹기·미술품 등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도서를 비치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체험공간으로 꾸며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철도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폐선부지 및 유휴부지에 대해 지역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친화적이고 주민편의적인 공간으로 상업적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익금은 고속철도건설로 발생한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전했다.

철도공단 호남본부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 철도건설 사업으로 사용되지 않는 폐노선의 터널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선별해 일반인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남지역 9개와 전북지역 2개 등 11개 페터널에 대해 지자체 협력한 주민편의 공간이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버섯재배, 특산물·농작물 저장소 또는 상업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철도부지 임대에 대한 사항은 호남본부 재산담당(061-840-5053)에게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철도공단 담당자를 통해 현장확인(안전성·접근성) 등 맞춤형 임대설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장사진 및 위치도



## 호남본부, 1사1촌마을과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

- 4월9일 전남 구례 방광마을에서 남천나무 등 150그루 식재 -

호남본부(본부장 이현정)는 4월9일(목) 제70회 식목일을 맞이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에 위치한 방광마을을 찾아 남천나무 등 150그루 나무를 심는 '사랑의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호남본부와 방광마을은 지난 2014년 7월 1사1촌 자매결연을 맺고, 농촌 일손 돕기, 현지 생산 농산물 구입 등 도농상생의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방광마을에서 요청한 남천나무와 가시나무를 하계캠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근 수영장 주변 특색에 맞게 식재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해 마을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호남본부 박찬택 차장은 "직원들과 마을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함께 심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다음 세대들에게 푸르른 국토를 물려주는데 일조하기를 희망한다."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 소백산 국립공원 환경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서다!

-환경·생태 공동조사단 발족, 죽령터널(도담~영천 철도건설구간) 친환경 공사 추진-

강원본부(본부장 최정환)는 중앙선 도담~영천 철도건설 구간 중, 소백산 국립공원 일부 지역을 통과하는 죽령터널 건설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환경단체 및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생태 공동조사단' 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이 구성한 환경·생태 공동조사단은 지역주민, 학계, 지자체 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04월 03일(금) 킥오프 미팅 (Kick off meeting, KOM)을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2015년 4월부터 공사가 완료되는 2017년 3월까지 죽령터널(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전체 11km 구간에서 포유류·양서류 등 동물 생태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철도시공 시 환경훼손 최소화를 위한 저감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중앙선 도담~영천 복선전철사업이 개통되면 간선철도 기능이 강화되어, 철도 수송체계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한 차원 높여줄 중요한 사업"이라며 "이번 죽령터널 구간에서의 합동조사단 운영은 친환경 철도시공의 모범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